

0.1%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20%의 과도한 안전시공으로 무재해 이룩

두산중공업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제7공구 현장

어디에선가 따뜻한 열기가 느껴진다.

이는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다. 믿고 따라주는 현장 근로자들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 주는 마음의 온기이다.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받아 무재해 1배의 성과를 달성한 이곳은 두산중공업에서 한창 시공 중에 있는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제7공구”(오명수 현장소장) 현장이다.

2005년 민간자본 유치로 착공하여 2009년 10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송산-용수국간” 5.7km를 최고의 안전을 기반으로 무재해 준공이 한창이다.

전국제일의 안전시설은 여기에....

차량에 몸을 실어 현장을 향했다. 얼마나 갔을까 1km 남짓한 거리에서 교량공사가 한창인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차량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장구를 챙긴다.

“현장에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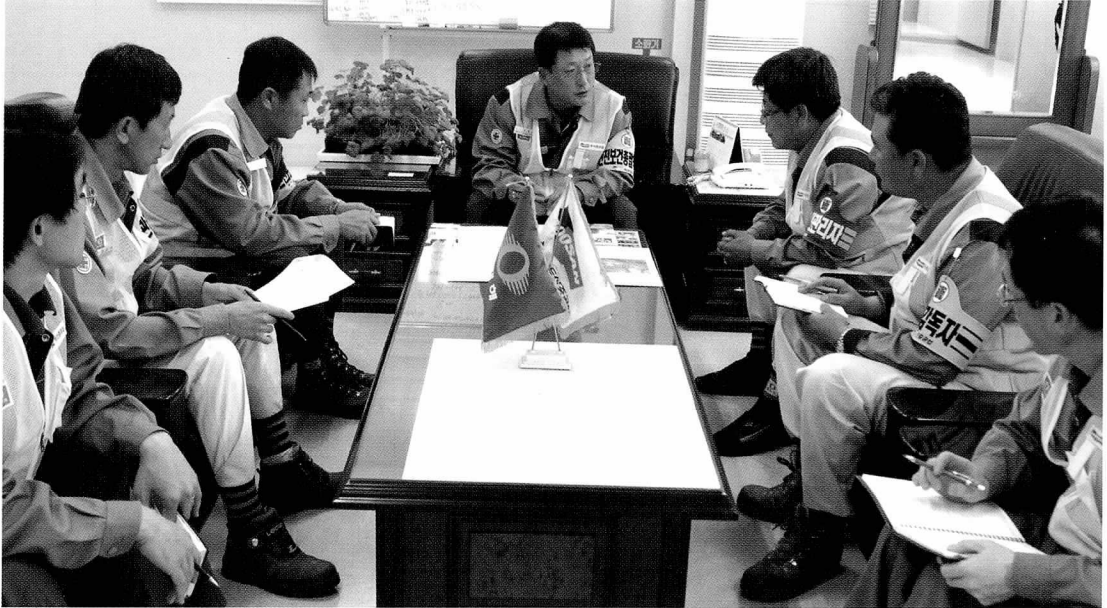
이렇게 하는 현장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향남교를 지날 때 유독 이곳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만 분주히 작업을 하고 있다.

김기환 안전과장의 “작업 중지 중입니다.”의 외마디.... 무슨 이유로 작업 중지란 말인가.

이유는 안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시설 설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것이다. 거처전 안전난간대를 비롯해 구멍줄 등 법적인 안전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작업반 투입전에 브렘프공법에 의한 추락방지시설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작업중지의 이유이다. 현재 본사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때까지 자체적으로 중지상태에 걸어놓고 있는 것이다.





향남교를 작업정지 상태로 만들게 한 “추락방지 시설”은 정남교에서 볼 수 있었다.

교량 사이트에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는데 낙하물방지망도 교량 사이사이에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 원래 낙하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현장에서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추락방지 역할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오명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보고 안전에 대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위험요소를 용납하지 않으려면 과다한 안전시공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처음 배울 때 0.1%의 오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의 과다한 시공을 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요즘 모든 원가와 시공 계획이 타이트한 것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잘못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근로자는 내품안에...

81년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철근 밴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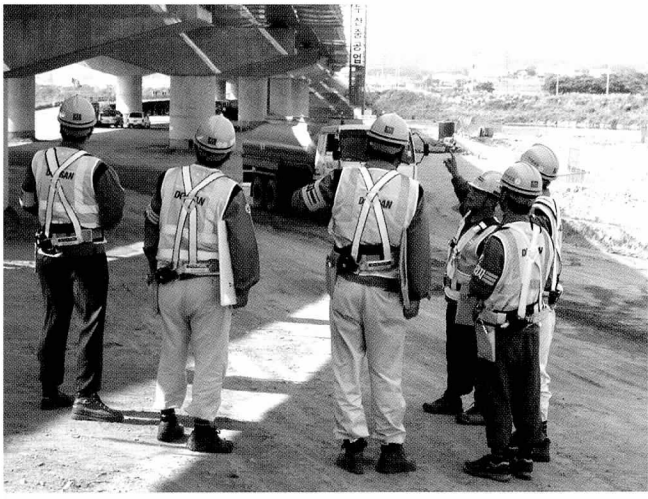
발생했다. 그 때 근로자는 당시 기사였던 오명수 현장소장에게 달려와 “나 좀 살려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일이 있다.

이때부터 근로자들은 우리를 믿고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근로자들은 현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 여겨왔던 오명수 소장은 현장 직원들에게도 “근로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현장관리로 근로자들과 항상 대화의 창을 열고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한다.

그래서 일까 이곳 현장에서는 강압적이고 수직 하달식의 관계는 찾아 볼 수 없다.

함께 참여하고 하나가 되어 모두가 무재해 준공을 향한다. 이러한 모습은 “전직원의 안전요원화”, “일일안전관리최선화”, “공구별 담당자 Cross-Checking 실시” 등에서 볼 수 있지만 참석율이 가장 높은 이른 아침조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남다르다.

근로자들이 새벽에 나와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 30~40분을 조회준비와 참석으로 소비되는 시간이라 근로자들이 불만을 갖기 충분하다고 이해하는 이곳 사람들, 이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되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기엔 알차고 재미있게 보내려 애쓰는 모습이다. 수원대 무용과 학



▲ 오 명 수 현장소장

0.1%로 오류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의 과도한
안전시공이 필요합니다.

생이 진행되는 에어로빅으로 활기 있게 시작하고, 매일 새로운 유머로 찾아오는 김기환 안전과장으로 부터 웃음을 선물 받으며, 새로운 현장 식구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을 다짐하며 작은 이벤트로 시작하는 이 곳의 아침은 충분히 특별했다.

김기환 안전과장은 요즘 고민 아닌 고민거리가 생겼다. 매일 아침 펼쳐야 할 재미있는 유머보따리 마련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해 오명수 소장과 함께 책을 쌓아놓고 노력하는 모습이 따뜻하고 정겹기 까지 하다. 오늘 아침도 이들의 마음속으로 근로자들은 하나 둘 모여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요즘 현장에서 외국인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곳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쉽게 눈에 띈다.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위험공정에 절대 투입되지 않는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더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안전교육이다.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불과했던 타 현장과는 달리 송출업체 담당자 안전공단과 연계한 외국인 근로자만의 안전교육에 자체적으로 통역관을 대동한 안전교육은 효과 만점이다.

특히, 우리말을 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 자국어로 되어 있는 안전교육 자료를 그들이 잃게 함은 기대했던 안전교육의 효과 이상이다.

사소한 부분에 까지 이들의 안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제7공구” 현장에는 준공 이래 지금까지 무재해는 이어지고 있고, 결국 지난 6월에 무재해 1배수를 달성하였다. 단 한 사람의 아픔도 허용하지 않는 이곳은 무재해 준공을 향해 오늘도 손의 손을 잡는다. 

〈최종덕 기자〉